

児童館における次世代育成支援の現状と課題

－世代間交流を手法として－

栗山昭子(구라야마, 芦屋大學)

1. 問題の所在

家族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児童健全育成の矛盾

現代家族は核家族からさらに個人化をすすめ、それぞれの家族成員が個人本位の生き方をライフスタイルとして選ぶ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多様な家族形態の社会的認知として肯定的に受けとめることもできます。その反面、両親の個人本位のライフスタイル選択により、共働き家庭が増え、保育所に通う子どもも多くなるなど、家族ダイナミクスの中でもっとも力の弱い子どもにしわ寄せがいつていることも見逃せない事実です。本発表では家族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家族の私事化によって、家庭が家族機能を果たさず、家庭の空洞化を招いた場合、そのしわ寄せは子どもにいくことになり、特に精神的に不安定になりやすい中高生や高齢者など世代間のすきまに陥りやすい世代が自らの居場所を見失う危険性があります。本研究では高齢者や中高生の居場所を家庭、地域のなかでいかに構築していくかを考えていきます。

2. 現状での問題点

現代の日本では少子化の流れのなかで一人っ子が増加しています。また地域コミュニティの崩壊により、親族関係や地域の人間関係が希薄化し、親類や近所の子どもとの交流や触れ合いが減少しています。そのため子どもの人間形成に必要な異年齢集団での仲間づくり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子ども達は学校から帰宅すると、テレビやパソコンのゲームに熱中し、抽象的なイメージの世界に遊ぶ個人主義的傾向が強くなっています。現在、日本では地域の児童館において、多世代の触れ合いを経験することは、子どもの発達にとって社会的急務として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きています。この点を踏まえて、世代間交流を手段として現在児童館で組まれているプログラムは有効であるか、改善の余地は

ないか、その在りかたを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3. 本発表における児童館の概要

今回研究の対象とした施設は、T市が一昨年六月に開設いたしました、高齢者と子どもの活動の場、子育て支援の施設です。この施設は老人福祉センター・大型児童センター・家庭児童支援センターの市立複合施設で、鉄筋三階建て、床面積が約3000ヘーペーです。この施設は、阪神淡路大震災でのボランティアの活動が発端となり建設されました。日曜大工を趣味としたグループが高齢者や障害者の被災住宅のビニールシートかけからはじまり、仮設住宅のバリアフリー化に取り組みました。その中の有志が私財を投じてボランティア・社会福祉の支援を目的に財団を設置して、この施設の上地2ヘクタールを提供し、建設しました。T市は財団が建て建てた施設を38年かけて市が買い戻すという方法をとりました。

4. T市のエンゼルプランから明らかとなった世代間交流の必要性

T市は、1996年に、児童育成計画「エンゼルプラン」を策定しました。その過程で、学童保育を全小学校区で実施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児童館を地域に整備することが、最重要課題の一つ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市民へのアンケート調査でもっとも高いニーズでした。また公募によって市民の代表募り、計画策定のワークショップを行なった結果でも、グループワークを行ったすべてのグループでもっとも関心の高いテーマでした。

このようにエンゼルプランの具体化のなかで、どのような児童館がもっとも望まれているかについて、ワークショップを重ねました。その結果、増加する高齢者に対して役割を用意する必要性と減少する子どもたちが異年齢の友だちをもつ機会が必要であることの二点が明らかとなりました。そこでこの二つのニーズを組み合わせて、世代間交流を手段とした子育て支援、並びに放課後児童健全育成支援計画が動き出しました。

5. 現代における世代間交流の難しさ

世代間交流はもともとは日本で生まれ、日本では自然発生的な世代間交流が大家族のなかで行われていたため、系統だった世代間交流の取り組みは発展しませんでした。しかし、25年前にアメリカで核家族のなかで孤立する児童が社会問題になり、インフォーマル・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の一形態として可能性を模索する試みがはじまりました。具体的にはミシガン州の小学校の教員であったキャロルタイスが児童の校内暴力の増加に歯止めをかけるため、学校では手上げ状態であったので、地域

の高齢者団体に支援を頼んだのが、世代間交流のはじまりといわれています。キャロルタイス自身は日本の世代間交流から触発を受けたと後年語っています。それより数年遅れてピッツバーグ大学の社会学科のサリーニューマン教授が自らジェネレーション・トゥギャザーを主催してペンシルバニア州で世代間交流プログラムを実用化しました。ARP 全米退職者協会との連携により、家庭訪問員制度や障害児をもつ家庭の支援プログラム、十代の未婚の母親への親業教育など貧困の女性化が進むアメリカ社会でニードに対応したプログラムを適宜供給してきました。そのための高齢者ボランティアの募集から育成、派遣に至るまで実践マニュアルを開発しており、世代間交流プログラムはいまやアメリカに学ぶところが多くなっています。

核家族化した現代の日本では世代間交流は現実に難しい課題です。それはアメリカと違い大家族に慣れているために、日本人の多くは核家族化した現状に対峙できていません。そのために世代間交流のプログラムや実践マニュアルが開発されていないからです。

実施されている世代間交流プログラムは、浴衣作り、陶芸、茶道、囲碁、尺八などです。

6. 今後の課題

世代間交流プログラムとしては、昔の遊びや伝承に偏りがちです。高齢者といえども、平均寿命の伸長により、今や元気老人が多いです。特に企業から定年退職した人々は、高い学歴や技術をもっており、それを活かすのは今後の大きな課題です。そのためのプログラム作りが緊急に必要です。それは高齢者のイメージを改め、21世紀に現役で社会貢献する地域の宝として高齢者を見直し、その技術を掘り起こし、子どもの健全育成に役立てることだと考えます。そのためにはまず古い医学モデルから脱却するために、高齢者観の是正が先決だと考えます。

아동관(兒童館)의 세대간 교류를 수단으로 하는 차세대육성지원의 현황과 과제

栗山昭子(구라야마, 芦屋大學)

1. 문제의 소재

가족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아동건전육성의 모순

현대 가족은 핵가족에서도 더한층 개인화가 진행되어, 가족성원 각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생활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한편 부모의 주체적인 선호에 근거한 가족생활로 인해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에게 그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가족의 사사화(私事化)에 의해, 가정이 형태는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상태인 경우,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중고생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

2. 현황에서의 문제점

현대 일본에서는, 소자화(少子化)의 흐름 속에 한자녀 가정의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친족관계나 지역의 인간관계가 희박해짐에 따라, 친척이나 이웃 아동과의 교류나 친밀한 접촉이 감소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의 인간형성에 필요한 나나메집단(ナナメ集団)에서의 친구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귀가하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게임에 열중하고, 추상적 이미지의 세계에서 노는 경향이 강해졌다. 여기 서 지금 지역 아동관에서 다세대 교류를 경험하는 것이 아동발달에서의 급선무가 되었다. 이 점을 근거로 지금이야말로, 현재 아동관에서 편성하고 있는, 세대간 교류를 수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유효한 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 그 본연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 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본 발표에서의 아동관의 개요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시설은 H시가 제작년 6월에 개설한, 고령자와 아동의 활동의 장, 양육지원시설이다. 복지시설의 카테고리로 말하자면, 노인복지센터·대형아동 센터·가정아동 지원센터인 시립복합시설로, 철근으로 된 삼층건물이며, 상면적(床面積, floor area)이 약 3,000 평방미터이다.

이 시설이 실현한 것은, 한신아와지 대재해(역사:고베 대지진) 당시의 자원봉사활동이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요일에 목수 활동을 취미로 하는 그룹이, 피해를 입은 고령 자나 장애인의 주택에 비닐막을 치는 일에서 시작해, 나아가 가설주택의 barrier free 화에 뛰어 들었다. 그중 뜻있는 사람이 사재를 투자해 자원봉사자·사회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토지 2 헥타를 제공해, 건물을 건설했다. H 시는 재단이 지은 시설을 38 년 걸쳐 시가 구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4. H시의 엔젤플랜에서 분명한 세대간 교류의 필요성

H시는, 1996년에, 아동육성계획 ‘엔젤플랜’을 책정했다. 그 과정에서, 학동보육(역사:방과후교육)이 모든 초등학교구에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아동 관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시민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가장 강한 니드였었다. 또한 공모에 의해 시민대표를 모집해, 계획책정 워크 샵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룹워크를 실시한 모든 그룹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였다.

이처럼 엔젤플랜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어떠한 아동관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워크샵을 반복했다. 그 결과,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게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과, 감소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다른 연령의 친구를 가질 기회가 필요하다는 두가지 측면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이 두가지 니드를 엮어, 세대간 교류를 수단으로 하는 아동양육지원, 더불어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지원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 현대의 세대간 교류에서의 어려움

세대간 교류는 본래 일본에서 생겨났으며, 일본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세대간 교류가 대가족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었던 세대간 교류의 대처가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25 년전 미국에서는 핵가족 내에서 고립되는 아동이 사회문제가 되어, 비공식적 지지망(informal support network) 형태의 하나로서 세대간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시간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캐롤타이스(????)가 아동의 학내폭력 증가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포기한 상태였던 까닭에, 지역의 고령자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세대간 교류의 출발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후일, 캐롤타이스 본인이 일본의 세대간 교류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년 뒤에 피츠버그대학 사회학과 사리뉴먼(????) 교수가 손수 generation together 를 주최하고 펜실베이아주에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용화하였다. ARP 전미퇴직자 협회와의 연대를 통해, 가정방문원제도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지원프로그램, 십대미혼모에 대한 부모교육 등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니드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공급해 왔다. 이를 위한 고령자 자원봉사자 모집에서부터 육성, 파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메뉴얼을 개발해,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미국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

핵가족화한 현대의 일본에서는, 세대간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미국과 달리 많은 일본인들은 대가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핵가족화한 현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를 위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나 실천 메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사되고 있는 세대간 교류프로그램은, 유카타(역자:일본의 무명 홀웃)만들기, 도예, 바둑, 통소 등이다.

6. 이후의 과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은 옛날식 놀이나 전통계승에 편중되기가 쉽다. 고령자라고 칭하더라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은 건강한 노인들이 많다. 특히 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들은 고학력 또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차후의 큰 과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긴급히 요구된다. 그것은, 고령자의 이미지를 새로이 해, 21 세기에 현역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의 보물로서 고령자를 다시 보고, 그 기술을 발굴해 아동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낡은 의학모델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고령자관(高齡者觀)의 시정이 선결 되어야 한다고 본다.